

4000만 지갑에 AI 심는다… 새로운 금융 수요로 수익화 도모

K 카카오 10조 성장 전략

② 미래 금융시장 선점

AI 에이전트 상품 검색·구매 환경서 카카오페이, 핵심 결제 인프라 전략
법·제도 정비, AI 기술 상용화 ‘관건’

카카오가 인적분할 이후 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금융시장 선점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4000만 디지털 지갑을 AI 결제와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카카오펀드는 기업금융과 비이자사업을 강화해 수익구조를 재편한다. 기존 결제·은행 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금융 활동 전반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카카오의 ‘2026년 애널리스트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펀드는 AI 금융과 디지털자산, 수익원 다변화를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카카오펀드가 추진하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중심 사업 재편의 핵심 축이다.

특히 카카오펀드의 이용자 접점과 카카오페이의 결제 인프라, 카카오펀드의 금융 경쟁력을 연결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늘리고 새로운 금융 수요를 확보하는 데



AI에 의해 생성된 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AI 기반 미래 금융시장 선점을 나서는 카카오 이미지.

초점을 맞췄다.

◆ 4000만 지갑에 AI 결합…결제 넘어 금융 중개까지

카카오페이의 핵심 전략은 4000만 디지털 지갑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슈퍼월렛’ 구축이다.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와 송금에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 지역화폐 등을 결합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AI 에이전트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금융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카카오의 AI 서비스와 외부 범용 AI 에이전트 간 연동을 확대할 게

카카오펀드, 가계대출 중심 구조서 기업금융·플랫폼 수익으로 다변화
AI 목표적금 출시… 고객경험 강화
전전성, 비이자사업 성과는 ‘과제’

확이다.

카카오의 카나나인 카카오펀드와 결제 기능을 연결하고, ‘챗GPT 포 카카오펀드’에서는 결제·송금·포인트 내역을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가 AI에 요청하면 금융정보 확인부터 관련 서비스 연결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AI가 자율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설

계된 글로벌 결제 표준 ‘x402’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카카오펀드가 핵심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카카오펀드 공동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과 수탁, 지급 결제, 해외송금뿐 아니라 콘텐츠 구매와 글로벌 공연 티켓 거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제도 정비와 AI 결제 기술의 상용화가 선행돼야 한다. 디지털 지갑의 이용자 기반을 실제 거래 증가와 수익 창출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카카오펀드, 기업금융·비이자수익 확대…ROE 15% 승부수

카카오펀드는 가계대출 중심의 사업구조를 기업금융과 플랫폼 수익 중심으로 다변화한다. 2030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5%를 달성하고, 전체 여신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8%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기업대출 비중은 2023년 3%에서 2024년 4%, 2025년 7%로 확대됐다. 카카오펀드는 기업금융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수수료·플랫폼 수익과 자산운용 수익을 강화해 영업수익 중 비이자수익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객 기반도 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 올해 6월 기준 고객 수는 2763만명,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2032만명이다. 수신잔액은 67조1000억원, 모임통장 잔액은 1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AI 금융 서비스의 상용화도 시작했다. 카카오펀드는 지난 12월 이용자의 저축 현황을 분석해 목표 달성을 돕는 ‘AI 목표적금’을 출시했다. AI를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 직접 접목해 고객 경험을 높이려는 시도다.

다만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와 비이자사업의 수익성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카카오펀드가 제시한 ROE 15% 목표 역시 대출 성장뿐 아니라 자본 효율성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카카오펀드 계열사의 경쟁력은 이용자 규모를 실제 수익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카카오페이가 AI 결제와 디지털자산의 접점을 확보하고 카카오펀드가 기업금융과 플랫폼 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그룹의 미래 성장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펀드는 카카오펀드의 연결 대상 자회사가 아닌 만큼 금융 계열사의 성장 성과와 카카오펀드의 연결 매출 목표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KT, 고객 일상부터 산업 현장까지 AI 기술사례 공유

2026 AID-X데이

고객의 소리 분석, 8시간 → 10분 단축
제조·물류 현장에서 로봇 플랫폼 연계

KT는 그룹사 임직원들과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AI) 성과를 공유하는 ‘2026 AID-X 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부터 이틀간 KT 판교빌딩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그 동안의 AI 혁신 사례와 연구개발(R&D) 성과 발표를 종합해 조직의 경험과 기술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그룹사와 각부서가 고객의 일상부터 산업 현장까지 각 분야의 AI 기술 사례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비즈니스, 혁신, 업무, 기술 등 총 4개의 영역에서 임직원들이 축적한 AI 역량과 전사 및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주요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KT ‘2026 AID-X DAY’.

/KT

사업 영역에서는 AI가 데이터 활용과 고객 경험, 기업 영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플랫폼 ‘마그마 BI/DW’가 있다. 8시간 가량 걸리던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VOC) 분석 업무를 10분 이내로 줄인 기술도 선보였다.

이 밖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기업간거래(B2B) 영역을 혁신한 사례도 공개했다.

혁신 영역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기반의 ‘로봇스킬 플라이휠’을 선보였다. 제조·물류 등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로운 작업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KT는 이를 자사의 로봇 서비스(RaaS) 플랫폼과 연계 중이다. 또한 차량 정비

분야에서 고장 가능성과 이상 징후 등을 예측해 현장 정비까지 지원하는 교통관리 AX 플랫폼도 선보였다.

업무 영역에서는 AI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해 임직원과 개발자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전사 AI 에이전트 관리 플랫폼 ‘AX 워크스’는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KT 디자인 시스템(KDS)을 AI 개발과 연계해 화면 기획부터 UI 디자인, 코드 생성까지 연결하는 기술도 소개했다.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개발 기간을 약 30% 단축했다.

기술 영역에서는 AI 시대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보안 기술을 소개했다. AI 보안진단 플랫폼과 비정상 문자 발송 및 이상 패턴을 탐지하는 ‘밀:음 K 3.0’ 등을 시연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카카오 新 AI 윤리원칙 공개

6대 원칙으로 구성된 ‘SPIRIT’
실행 체계 ‘NORMA’도 마련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마련했다.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펀드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펀드 2026’에서 새로운 AI 윤리 원칙과 실행 체계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 프라이버시, 포용, 책임, 이용자 주체성, 투명성과 신뢰성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채택하고 카카오펀드 서비스 환경에 맞춰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

윤리 원칙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 체계 ‘NORMA’도 마련했다. 조직 차원의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복잡한 AI 윤리 문제를 관리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카카오펀드는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를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에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이들 토대로 마련한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과, 사전 위험 점검, 통제 항목 점검 및 판정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펀드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AI로 자율주행 기능 없이도 車 무인 이송”

SKT,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수상

SK텔레콤이 개발한 피지컬 AI 서비스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5G) 환경에서 완성차를 자율 이송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내년에 국내 산업 현장에 적용된다.

SK텔레콤은 국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분야 행사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

엔나에서 열렸다. 100명 이상의 전문 연사와 1000개 이상의 글로벌 통신사와 대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SK텔레콤이 개발한 AI-RAN 기반의 완성차 무인 자율 이송(AVM) 서비스다.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AI-RAN이 현장의 차량을 직접 인지하고 제어하며 새로운 유형의 통신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AI-RAN은 통신 서비스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다. AI-RAN 기지국을 개발·실증하고, AI 서비스를 함께 처리하는 상황



13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네트워크 X’에서 나민수 SK텔레콤 비즈테크팀 매니저(왼쪽)와 신홍석 유선 테크팀 매니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에서도 통신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AVM은 차량을 이송하고

정렬하는 작업을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다. 현장에 설치된 라이더(LiDAR) 센서가 3차원 좌표 형식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내면, AI-RAN 기지국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한다. 이후 충돌 없는 경로를 계산한 뒤 완성차에 주행 명령을 내린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도 모듈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무인 이송이 가능하다.

AVM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 옮기던 완성차 이송 작업을 무인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번 실증으로 최신 자율주행차에 국한됐던 자동화 범위를 일반 차량과 로봇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민선 기자